

동백 성루카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5-29
대표전화 : 031-548-0010



천주교 수원교구 운영하는 동백 성루카병원을 소개합니다. 동백 성루카병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차별 없는 사랑의 영성으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며 동행하는 것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매일 의료진, 원목팀, 사회복지사, 사별가족팀 등의 다학제 팀원들이 참석하는 팀 회의를 통하여,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별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적 돌봄을 위하여 상주하는 사제와 수도자가 매일 미사와 상담과 여러 성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요법치료를 통하여,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1. 역사

동백 성루카병원은 수원교구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	내용
2011년 8월	호스피스병원 건축계획 수립
2018년 7월	동백 성루카병원 기공식
2020년 4월	건물 사용 승인
2020년 5월	동백성루카병원 개원

2. 인력

현재 동백 성루카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이전이라, 40병상 중 20병상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제 1명, 수도자 2명, 의사 3명, 간호사 17명, 사회복지사 1명, 약사 1명, 기타 업무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시설

구 분	내 용
지상 3층	3병동(20병상), 기타 기능실 등
지상 2층	2병동(20병상), 기타 기능실 등
지상 1층	사무실, 성당, 카페, 식당 등
지하 1층	교육관, 자원봉사자실, 세탁실 등

병실은 특실 3실, 1인실 13실, 2인실 1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각 병동마다 가족 휴게실, 목욕실, 프로그램실, 임종실 3곳(미카엘실, 라파엘실, 가브리엘실), 상담실, 성체조배실, 자원봉사자실, 가정방문센터, 사별가족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병동 지원과 복지시설로는 성당, 사무실, 약국, 카페, 직원 휴게실과 식당(병원 내 급식 시설), 교육관, 세탁실,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 정원에는 수려한 자연과 함께 파라솔 그리고 파고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병상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정원으로 이동하여 보호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동백 성루카병원의 큰 장점입니다.

4. 요법 치료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법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법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들을 나누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마음의 다양한 감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치유와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요법치료로는 음악, 미술, 아로마, 원예, 다도(티테라피) 등의 다양한 요법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사별가족 돌봄

환자와 사별한 가족들이 사별 후 지나친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족들을 위한 사별 돌봄과 동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성부에 소속된 수도자와 사별가족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별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교육 및 인재 양성

동백 성루카병원에서는 지난 10년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 회 8주 32시간 프로그램으로 매년 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기에 평균 160~180명 정도의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의 각 성당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관련 영상으로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영상을 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도 호스피스 관련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어 연구 발표하는 세미나와 사제와 수도자들의 월례모임을 통하여, 영적 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 성루카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 저희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뽑아서 보내주신 분들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최선의 시설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